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❶ 禪, 한반도에 전하다



▶ 불교인재원 교수, 조계종 총무원에서 20년간 종무원으로 일하다 선지식을 인연으로 선을 만나 마음이 편해졌다. 선의 대중화를 원력으로 불교인재원에서 생활참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에 참여하고 있다.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 등 여러 저서가 있다.

도의스님, 조사가 되어 오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서기 821년), 신라 도의(道義) 스님이 중국으로 구법을 갔다가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깨치고 조사가 되어 귀국한다.

당시 한반도에는 불교가 전해진 지 500년이나 되어 불교가 국교의 위상이었고, 자장, 의상, 원효와 같은 고승들이 나와 승려의 위상도 높았으나 선(禪)과 조사(祖師)는 생경하였다.

이런 신라의 분위기는 최치원이 지은 봉암사 지증대사비문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 (불)교가 일어남에 있어, 아비달마대비파사론(阿毘達磨大毘婆娑論)이 먼저 이르자 우리나라에 사제(四諦, 사성제)의 법륜이 달렸고, 대승교가 뒤에 오니 전국에 일승(一乘)의 거울이 빛났다. 〈중략〉 장경(長慶) 초(서기 821년)에 이르러, 도의(道義)라는 스님이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가서 서당 지장(西堂 智藏)의 깊은 법력을 보고 지혜의 빛이 서당 지장선사와 비등해져서 돌아왔으니, 선종을 처음 말한 사람이다.

그러나 원숭이의 마음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남쪽을 향해 북쪽으로 달리는 잘못을 감싸고, 메추라기의 날개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남해를 횡단하려는 대붕의 높은 소망을 꾸짖었다. 이미 외우는 말에만 마음이 쏠려 다투어 비웃으며 '마어(魔語, 마구니 말)'라고 한 까닭에 빛을 지붕 아래 숨기고, 종적을 협소한 곳에 감추었는데, 동해의 동쪽에 갈 생각을 그만두고, 마침내 북산에 은둔하였으니, 어찌 〈주역(周易)〉에서 말한 "세상을 피해 살아도 근심이 없다"는 것이겠는가.

꽃이 겨울 산봉우리에서 빼어나 선정의 숲에서 향기를 풍기매, 덕을 사모하는 자가 산에 가득하였고, 착하게 된 사람이 골짜기를 나섰으니, 도는 폐(廢)해질 수 없으며 때가 그러한 뒤에 행해지는 것이다."



봉암사 지증대사비(국보 315호). 최치원의 유명한 사산비문 중 하나로 통일신라 경애왕대(924년)에 세워졌다. 선의 전래와 구산선문 선사 행장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비문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한국선 역사학계 논쟁 있지만
역대 선사, 남종선 정통 시각
〈육조단경〉 속 '돈오' 선 입장
한국불교 선의 전승에 근간돼
현대적인 가치와 대안 전할 터



봉암사 지증대사비.

신라 도의 스님이 중국에 가서 마조 선사의 상수제자인 서당 지장(735~814)선사를 만나 마음을 밝히고 돌아와 선(禪)을 처음으로 전했다는 기록이다. 그런데, 당시 한반도에는 불교가 전해진 지 약 500년이나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익숙해 있었을 때임에도 '외우는 말에만 쏠려 비웃으며 마구니말(魔語)'이라 선은 비난 받았다. 까닭에 도의 스님은 당시 서울인 경주로 가지 않고 저 변방인 설악산 진전사에서 은둔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6세기경 중국에 달마대사가 처음 선을 전한 분위기와 같다.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을 때에는 불교가 전해진 지 500년이나 지난 시기였으나, 양무제를 비롯한 중국 사람들은 복을 구하려 불교를 믿었지만,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선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마는 양자강을 건너 북방 숭산 소림굴에서 9년 동안이나 은둔하면서 시절인연을 기다려야 했다.

도의 스님과 구산선문,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그러나, 설악산 골짜기로 은둔한 도의 스님의 도와 덕이 얼마나 빼어났던지 '개미가 고기가 있는 곳에 모여들듯이 도를 사모하는 이들이 산을 매웠으며, 교화를 받고는 마침내 기러기 떼처럼 산을 떠났다' 하니, 삽시간에 선은 확산되었다.

한반도에 선을 처음 전한 도의 스님은 선종의 초조 달마에 비유하여 '해동 초조'라 하고 그의 법은 2조 염거(?~844, 선림원) - 3조 보조 체징(804~880) 스님에 이르러 신라 국왕의 지원으로 장흥 보림사에 가지산문이 정식으로 개창하게 된다. '마구니말'로 배척받던 선은 도의의 손제자인 보조국사대에 이르면, 국왕이 스님을 국사(國師)로 추대하고 본래 화엄종 사찰이었던 절을 중국 6조 혜능대사가 주석한 보림사와 같이 신라 보림사라 개명하여 국찰로 정했으니 가히 천지개벽의 큰 변화가 있었다.

도의 스님을 조사로 설악산 진전사에서 출발한 해동 선은 3조대에 이르러 가진산문에 800명, 소백산 진공대사 문하에 400명에 달하는 선승들이 수행하였고, 후삼국시대에는 왕건의 스승이었던 강진 무위사 형미대사, 고려 개국 뒤 구산선문의 좌장으로 국사였던 〈삼국유사〉의 일연 스님, 화두 참선으로 중국 임제종 조사에게 깨침을 인가받아 온 태고 보우국사의 법맥으로 이어져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의 전통과 역사가 되었고, 도의 스님은 근대 조계종의 종조로 모셔지게 되어 명실상부한 해동 초조로 정립되었다.

해동 초조, 도의인가? 법랑-신행 스님인가?

도의 스님이 처음 선법을 전할 때, 이미 한반도에는 불교가 있었다. 초기에는 사성제의 비파사나(위빠사나, 관법) 수행과 이어서 의상대사를 초조로 대승교학의 최고봉이라는 화엄종이 광범하게 뿌리내렸고, 또한, 북종선 선맥도 이미 들어와 있었다.

특히 신라 법랑(法朗) 스님은 중국으로 가서 선종 4조 도신선사의 인가를 받고 돌아와 신행(神行, 愼行, 704~779)스님에게 선을 전하였다. 그런데, 신행 스님은 스승이 입적하자 중국으로 가서 남종이 아닌 북종선의 신수대사의 법맥을 이은 보적의 제자 지공 스님 문하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지리산 단속사에서 교화하다 입적하였다.

813년에 세운 단속사 신행선사탑비 등에 남겨진 기록으로 보건데 '해동 초조'는 도의가 아니라 법랑과 신행 스님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최치원은 '도의라는 스님이 처음 선을 말한 이'라 기록하였고, 고려시대 이규보와 이제현 같은 대학자들과 조계종의 역대 선사들이 한결같이 '해동 초조 도의국사'라 하였는가? 이 문제는 지금도 시비가 있는 선종의 역사 문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선종의 5조 홍인의 제자, 신수(?~706)대사의 북종(北宗)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다.

만약, 북종선을 선종으로 본다면 해동 초조는 법랑과 신행 스님이 되어야 하나, 당시 신라 최치원의 기록도 그렇고, 역대 한국 선사들이 한결 같이 북종을 선(禪)의 정통으로 보지 않고 6조 혜능대사의 남종(南宗) 돈오선을 선의 정통으로 보았기 때문에 해동 초조는 도의 스님이 된 것이다.

선의 종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선이란 무엇인가? 선의 정체를 어떻게 보느냐하는 안목과 직결된다. 즉, 6조 혜능 대사를 중심으로 한 남종 돈오선을 선의 정통으로 보게 되면, 북종의 점수설은 선이 아니고 교학과 가깝다. 왜냐하면, 육조 혜능대사 이래 역대 조사들은 선의 종지를 돈오(頓悟, 단박 깨침), 직지(直指), 교외별전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북종은 점수점오(漸修漸悟, 점차 닦고 깨침)를 주장했다.

남종 돈오선의 입장은 〈돈황본 육조단경〉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육조단경〉에는 5조 홍인 대사의 전법을 두고 교수사 신수와 행자 혜능의 게송 대결이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다. 결국, 대단한 학식의 교수사 신수대사의 '먼지와 티끌을 닦고 닦아서 깨달음에 이른다'는 점수점오 게송은 무식한 나뭇꾼 오랑캐 출신의 8개월 행자 혜능의 '먼지와 티끌이 본래 없다'는 본래성불의 돈오 게송에 밀려 인가를 받지 못한다(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이 〈육조단경〉의 조작설을 주장하지만, 선종의 조사들 중에서 이를 정통으로 보지 않은 이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북종 점수설의 신수-보적-지공의 선맥을 이었다는 신행 스님을 선종에서는 선사의 법맥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최치원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구산선문 중 유일하게 남종 돈오선 법맥이 아닌 희양산문 봉암사의 개산조 지증대사 비문을 지으며, 지증대사의 선조되는 신행 스님의 '신수-보적-지공' 법맥(신행대사비문에는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은 빼고, '4조 도신-법랑' 법맥만 기록하였던 것이다.

선, 인류 문명 위기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200년 전 도의 스님이 전한 선이 구산선문 이후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중심 동력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도의 스님 당시나 지금 한국불교에서도 선은 언제나 '마구니말'이나 '신비주의', '선정주의' 등으로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다.

하지만, 선은 전래 당시 평등사상으로 신라의 골품신분제사회의 폐단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고, 후삼국시대에는 고려 왕건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에도 힘이 되었다. 고려 중기에는 승풍 추락에 맞서 간화선을 도입한 결사운동으로 수행 종풍을 되살렸고, 조선조 숭유억불시대에는 서산-사명 선사들이 파계행이라는 비판에도 도탄에 빠진 국가와 백성 구제를 위해 일본의 외침을 막는 전쟁에 참여하여 불법을 지켰다.

특히 근세에는 걸출한 경허와 용성선사의 활약과 선풍 진작은 만공, 한암, 만해, 효봉, 동산, 청담, 금오, 성철, 향곡, 전강, 서옹 등 기라성 같은 선승들을 배출하여 선학원과 조선불교조계종의 재건, 그리고 광복 후 봉암사 결사와 승단 정화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불교조계종의 통합 재건을 성취하였다.

한반도 전래 1200주년을 맞는 지금 과연 선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사태와 지구 기후 변동으로 일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인류에게 선은 어떤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번 "선, 세상과 만나다"의 연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위빠사나 명상과 티벳불교와 달리 한국선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떤 가치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탁마해 보고자 한다.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무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회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수 천만원 대형 사찰 소리보다
1/10 가격, 본사의 소리가 월등한 이유 : 그들은 단가를 높이려 불필요한 부속들을 잔뜩 채움으로
1. 앰프다루기 복잡 2. 기능 분산으로 잦은 고장은 음질저하로 나타남
본사의 장점 : 1. 최신 간결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2. 부드럽고 파워있는 소리! 3. 외부스피커 16개까지 연결
주의 : 주위의 전문가 행세하는 반식자들 말 보다 본사의 견본으로 법당서 확실하게 소리비교! 장난감 수준의 차이를 확인 후 1/10 가격으로 시설!
대상 : 전국사찰 · 교회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5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방송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NK Sound NK사운드 대표 박공희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1.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지만 동시 사용은 2개
2. 헤드셋 사용 염불시 자유로운 두 손으로 목탁 요령, 북 사용
시중에 없음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으로 가격 ₩58만원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58만원